

第60回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  
本會議會議錄

開會式

城北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7年4月8日(木) 午前11時

第60回(臨時會)開會式順

1. 開 式
1. 國旗에 대한敬禮
1. 愛國歌齊唱
1. 殉國先烈및戰歿護國勇士에 대한默念
1. 開會辭
1. 閉 式

(司會：議事係長 洪德熹)

(10時05分 開式)

○議事係長 洪德熹 지금부터 제6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대한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애국가는 전주곡에 따라 1절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議長 趙基燦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앙상한 나뭇가지에서도 파릇한 새순이 돋아나고 만물이 생동하는 싱그러운 계절에 이렇게 여러 의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어려운 환경과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말 없이 묵묵히 발로 뛰었던 여러 의원님들과 심장석부구청장님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심어린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혹자들은 이 시기를 총체적 위기 상황이라고 까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위기 상황속에서도 수많은 난제들을 지혜롭게 풀어나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그 문제의 본질과 핵심을 짚어 나가야 겠고 대화와 타협으로 얽힌 실 타래를 풀어 헤쳐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하지만 이렇듯 총체적 위기상황속에서도 일찌기 지방자치의 꽃을 피어온 서구 여러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도약의 기회로 발전시켰고 더욱더 과감한 투자와 합리적 경영으로 지역의 살찌우기를 시도한 결과 마침내는 고용 재창출과 경영 흑자를 이룩하였고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에도 적지않은 기여를 한 예를 여러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렇듯 국가가 위기 상황아래에서도 지역도 같이 위축될 수는 없습니다. 이럴때일수록 더욱더 2,000년대를 대비한 합리적인 경영사업으로 자치구 삶의 질을 확대하면서 거시적 안목에서 단계적 접근 방식의 채택과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볼 수 있는 21세기 경영마인드로서

의 사고 전환으로 우리 시야를 넓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동안 별려놓았던 수 많은 사업들을 차근 차근 점점함으로서 안으로는 내실을 기하고 밖으로는 주민복리에 이바지 함으로서 명실공히 지역주민과의 일체감 조성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행정 책임지는 의회상 구현 지역주민들이 집행부와 의회에 대하여 미래에 대한 꿈과 믿음을 공고히 하는데 또한 우리 모두 앞장서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친애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옛말에 비운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어려운 상황이 내일을 위한 연단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다같이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제60회 임시회가 소득과 결실이 있는 임시회가 되어서 살기 좋은 성북 21세기의 미래 성북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는 튼튼한 반석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아울러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우리가 염원하는 21세기의 미래 성북건설에 다같이 뜻과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기원하면서 짧으나마 개회사에 대신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議事係長 洪德熹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칩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1時12分 閉式)